



전북현대가 지난 2일 포항 스틸러스와 3라운드에서 0-1로 저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 전북, 포항전 패배 만회하나?

지난 2일 K리그 3라운드서 0-1로 저... 6일 울산현대와의 라이벌전 결과 중요

프로축구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흔들리고 있다. 2022시즌 하나원큐 K리그1 3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전북은 12개 팀 중 7위에 랭크돼 있다. 시즌 초반이라곤 하지만 지난 시즌 우승 팀엔 어울리지 않는 위치다. 출발은 좋았다. 지난달 19일 수원FC와 홈 개막전에서 송민규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대구FC 원정에서 김보경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기며 주춤하더니 지난 2일 안방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3라운드에서 0-1로 저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전북이 14경기 만에 처음으로 수원 삼성에 1-3으로 졌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첫 패배다. 그 사이 순위도 7위(승점 4)까지 추락했다. 승점이 같은 팀이 5팀이나 될 정도로 시즌

초반 경쟁이 치열하다. 선두인 울산 현대(승점 7)와 승점 차는 불과 3점이지만, 현대가 터비를 놓치면 전북의 리그 6연패 시나리오도 꼬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는 6일 오후 4시30분 예정된 울산과의 현대가 터비를 대비한 로테이션 가동이 빠야 할 실책이 됐다. 홈 경기였지만 포항을 상대로 일류첸코, 문선민, 김보경, 송민규, 김진수 등 주전급 선수들 대거 벤치로 내린 전북은 후반에 승부를 던졌으나 오히려 벨런스가 깨지면서 포항 정재희에게 일격을 당했다. 두꺼운 선수층에도 전북이 시즌 초반부터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아픈 측면이 있다. 전북의 강점으로 꼽히는 발 빠른 측면 공격수들이 여전히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측 공격수 한교원과 우측 풀백 이용이 나

란히 다쳤고 외국인 공격수 바로우는 비자 발급 문제로 아직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답지 않은 조용한 겨울을 보낸 것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당초 전북은 멀티 측면 자원인 강상우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됐고, 중앙 수비수 영입도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시즌 나란히 15골을 넣으며 전북 우승을 이끈 구스타보와 일류첸코가 견제하지만 측면 자원의 이탈 속에 이들의 득점포도 멈춘 상태다. 개막 후 3경기가 지났지만, 아직 볼 다 미수 같이 골이 없다. 포항전 패배를 만회하려면 울산전 승리가 절실한 전북이다. 순위를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반등하기 위해 총력을 펼칠 전망이다. 당장 측면 자원의 부재가 우려되지만, 포항전 패배와 맞바꾼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가 관건이다. /뉴시스

# “우크라이나 위해 완장차고 땀 것”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 주장들 '한 뜻'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러시아에 침공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뜻을 모은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3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와 우리 클럽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이번 주말 모든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연대의 표시로 3월 5일부터 7일

까지 열리는 모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0명의 각 클럽 주장들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인 노랑과 파랑의 완장을 찬다. 또한 각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와 감독, 경기 관계자들은 물론 팬들도 함께 연대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는 우크라이나 국기 색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축



구(Football Stands Together)를 표시한다. 이 문장은 경기 중 LED 주변 보드에도 띄워진다. /뉴시스

# ‘한국 체육을 빛낸 인물’ 도내서 3명

문해진 선수·박진규 전 감독·송제호 교수 등 대한체육회 체육상

문해진 육상 선수와 박진규 전 전주대 레슬링 감독, 송제호 원광대 교수가 한국 체육을 빛낸 인물로 선



문해진



박진규



송제호

단 거리를 석권해 전북 체육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도부분장려상을 수상한 박진규 전 감독은 제46

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등 지난해 열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전주대 레슬링팀을 전국 최강팀으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송제호 교수는 신체기능과 경기력 향상, 컨디션 등에 관련 된 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체육 교육에 앞장 서 연구부문을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체육대상은 도쿄 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9연패 위업을 달성한 2020도쿄올림픽 여자 양궁대표팀이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 러시아 피겨선수들, 국제대회 출전 무산

우크라이나 침공 따른 제재로... 러 취재진 역시 신청 승인 못받아 베이징동계올림픽 女 싱글 6위 유영·9위 김예림 메달 가능성 커 피겨 세계선수권, 21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 피겨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길이 막혔다. ISU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결정을 전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빙상연맹 소속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연맹 소속 선수들은 중립 소속으로도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3월 예정된 2021~2022시즌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한 해 한 번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국제대회다. 이번 징계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으로 논란이 된 카밀라 발리예바를 비롯해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안나 세르바코바, 은메달리스트 알렉산드라 트루소바의 세계선수권 출전 길이 막혔다. 특히 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4위에 그쳤던 발

리에바는 세계선수권대회서 실욕을 느꼈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출전이 무산됐다. 러시아 선수들뿐만이 아니다. 러시아 매체 스포르트에 따르면 러시아 취재진 역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취재 신청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러시아 빙상연맹은 “ISU의 결정에 실망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차별적이고 올림픽 정신을 크게 위배했다”며 비난했다. 러시아의 불참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각각 6위와 9위에 오른 유영(수리고)과 김예림(단국대)의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은 커졌다. 당시 유영보다 점수가 높았던 러시아 3인방이 빠지면 3위권 이내 진입도 충분히 가능해진 다. 피겨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개최된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